

박경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R. Schumann의 <4개의 미뇽의 노래>에 대한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윤영주

R. Schumann의 <4개의 미몽의 노래>에 대한
연구

박경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윤 영 주

인 준 서

윤영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독일 낭만주의에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를 중심으로 나타난 “질풍 노도(Strum und Drang)”¹⁾는 19세기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괴테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는 교양 소설로서, 주인공 빌헬름이 사회의 안정적 삶을 버리고 선택한 연극의 길, 넓게는 인생의 길에서 겪는 갖가지 사건 사고를 엮어놓은 소설이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미룡이 부르는 서정시들은 독일 예술 가곡 양식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작곡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음악화 되었다.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볼프(Hugo Wolf, 1860~1903),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등 많은 작곡가들이 이 시에 영감을 받아 곡을 썼는데,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시를 서정적으로 가장 잘 표현했던 슈만의 <4개의 미룡의 노래>를 분석하였다.

이 소설에 나타난 미룡의 노래 “Kennst du das Land(그 나라를 아는가)”, “Nur wer die Sehnsucht kennt(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내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해주세요)”,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내 모습 이대로 두어요)”는 신비스런 모습의 미룡의 신성과 본성을 그리는 시이다.²⁾

1) 질풍 노도의 시대: 1760~1785년 사이에 일어난 독일 문학 운동으로서 개인적 자유, 특히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낡은 것의 파괴와 동시에 새로운 것의 창조를 추구하였다.

2) 강여정, “괴테의 서정시 <미룡의 노래>에 관한 연구-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성악전공), p.11.

첫 번째 곡 “Kennst du das Land”는 각 절마다 미농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다소 어둡고 극적인 느낌의 곡이다. 자신의 납치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3절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반주 또한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시를 음악적으로 더욱 극대화시켰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후주의 맨 마지막에 처음 시작 되는 성악 선율을 다시 한 번 연주함으로써 주제 선율을 정리하고, 노래에 통일성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곡 “Nur wer die Sehnsucht kennt”는 미농이 이름 모를 여인을 그리워하는 빌헬름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로 빌헬름에 대한 미농의 동경과 그리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잣은 도약을 사용함으로써 ‘Sehnsucht(동경)’, ‘brennt(불타는)’ 등의 시어를 강조하고, 반주부에선 아르페이지오를 사용함으로 독립적인 반주의 형태를 보여준다. 세 번째 곡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미농의 고뇌와 비밀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나타나있는 곡이다. 강하게 시작되는 반주는 미농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며, 성악 선율은 주로 반음과 도약 음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미농의 걱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곡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부르는 미농의 노래로 전반적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다음 생에 대한 미농의 희망도 엿보이는 곡이다. 반주는 셋잇단음표 진행으로 성악 선율과 병행하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왼손의 멜로디는 성악 선율과 2중주의 역할을 한다. 또한 후주는 다른 곡에 비해 길며, 클라이막스의 성악 선율과는 대조적으로 조금 빨라짐으로 곡의 전체를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위의 4곡을 분석한 결과 미농의 노래는 전체적으로 미농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빌헬름에 대한 사랑, 동경 등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슈만은 미농의 시를 음악적으로 더욱 극대화시켰다. 중요한 단어나 시구에서는 잣은 전조나 화성의 변화를 주면서 미농의 심리를 잘 나

타내었으며, 반주부는 성악 선율과 동등한 위치로 승격되어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악 선율과 짜임새 있게 움직이며, 슈만 가곡의 가장 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1. Robert Schumann	
1) Robert Schumann의 생애-----	3
2) Robert Schumann의 음악과 가곡의 특징-----	13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1) Goethe의 생애와 작품-----	17
2) 소설 <Wilhelm Meister>의 내용과 소설 속에 나타난 미농-----	22
III. <Wilhelm Meister>에 의한 Robert Schumann의 가곡 “4개의 미농의 노래” 분석	
1. Kennst du das Land-----	26
2. Nur wer die Sehnsucht kennt-----	35
3.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41
4.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50
IV. 결론-----	5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Kennst du das Land 악곡 분석-----	29
[표2]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악곡 분석-----	36
[표3]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악곡 분석--	43
[표4]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악곡 분석-----	52

I. 서론

독일 예술가곡은 18세기 고전주의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인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에 의해 작곡되어지기 시작하여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볼프(Hugo Wolf, 1860~1903) 등에 의해 음악적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 가치를 예술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새로운 음악장르로서 정립되었다. 따라서 독일 예술가곡은 한마디로 말하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³⁾

19세기 독일 가곡은 기원과 영감 면에서 독일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시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괴테의 대표작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파우스트(Faust)> 등은 모두 아름다운 음악으로 작곡되었으며, 특히 <빌헬름 마이스터>는 여러 작곡가들이 노랫말에 곡을 붙였을 정도로 독일 예술가곡에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작곡가 토마(Ambroise Thomas, 1811~1896)도 자신의 오페라 <미농(Mignon)>의 1막에서 미농이 부르는 아리아의 가사로 "Connais-tu le pays? (Kennst du das Land)"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농의 시는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되어졌는데 그 중 슈만

3) 김미애, <독일 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 출판사, 1998), p.5.

의 가곡은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을 서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작곡가 중 하나로 꼽힌다.

슈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의 시에 의한 <시인의 사랑(Dichterliebe)>⁴⁾과 샤미소(Adelbert von Chamisso, 1781~1838)의 시에 의한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Leben)>⁵⁾가 있다. 슈만은 깊은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 또한 반주부의 역할을 확대시켰다는 데에 그 공헌이 크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 및 목적으로는 우선 슈만의 생애와 가곡에 나타난 그의 음악적 특징들을 알아보고, 시의 배경이 된 소설의 내용과 소설의 작가인 괴테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봄으로써 문학작품으로서의 시의 의의와 내용을 연구하며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에 의한 ‘4개의 미몽의 노래’에 나타난 슈만 가곡의 특징들을 알아본다. 또한 각 작품의 형식과 화성, 선율, 반주, 악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슈만의 음악적 스타일과 가곡에 나타난 특징에 결과를 얻고, 그의 가곡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시인의 사랑: 슈만의 '가곡의 해'라 불리던 1840년 작곡된 그의 연가곡으로 총 16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곡은 사랑에 대한 기쁨을, 7~14곡은 실연의 아픔, 그리고 마지막 2곡은 지나간 청춘에 대한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다.

5)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과 같은 해에 작곡되었으며 총 8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가곡이다. 처녀 시절부터 사랑하던 연인과 결혼에 이르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여자의 행복을 알게 되지만 남편을 잃게 되며 슬픔에 가득하다는 것으로 인생의 고뇌와 희비를 그린 작품이다.

II. 본론

1. Robert Schumann의 생애와 음악

1) 슈만의 생애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은 1810년 6월 8일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작센(Sachsen)의 쾰비카우(Zwickau)에서 출판가이자 작가인 아우구스트 슈만(August Schumann)과 외과의사의 딸이었던 요한나 크리스티아나(Johanna Christiana)의 사이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슈만이 태어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신경쇠약에 걸렸으며, 이는 남은 여생동안 내내 그를 괴롭혔다.

1816년 슈만이 쾰비카우의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그의 교육은 시작되었으나, 이때부터 슈만의 음악적인 재능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슈만은 성 마리아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인 쿤츠(J. G. Kuntzsch, 1775~1885)로부터 첫 번째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

1819년 8월 슈만은 칼스바트(Karlsbat)에서 당시 천재적인 재능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모셀레스(Ignaz Moscheles, 1794~1870)의 연주를 들었고, 이는 슈만에게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슈만의 초기 출판 작품들을 보면 피아노를 다루는 방식에서 모셀레스의 스타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⁶⁾ 이 시기에 슈만은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의 오페라 <마술피리(Die Zauberflöte)>를 통해 처음 오페라를 감상했으며, 1821년 11월 6일에는 쿤츠가 오르가니스트로 있

6) 하에자, <슈만의 피아노 문헌: 독주곡편> (서울: 음악춘추사, 1991), pp.8~9.

는 성 마리아 성당에서 연주하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Friedrich Schneider)의 오라토리오 <세상의 기쁨 (Weltgericht)> 공연에서도 피아노를 맡아 연주에 참여하였다.

1820년 그는 쾰비카우의 리케움(Lyceum)에 입학하였으며, 그 곳의 교장에 의해 열렸던 ‘여흥의 저녁’에 슈만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기록을 통해 그가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슈만은 아버지의 서점과 도서관을 통해 여러 장르의 책을 접하며 문학 분야에서도 그 재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더욱 고취가 되었는데, 슈만의 아버지는 슈만이 13살 되던 해에 그가 발행한 ‘모든 민족과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집(Bildergalerie der berühmtesten Menschen aller Völker und Zeiten)’에 짧은 원고들을 신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1823년에는 첫 번째 모음집 ‘황금의 목초지에 핀 잎과 꽃들(Sküländer)’, 1825에서 1828년까지 씌어진 두 번째 책인 산문집 ‘쾰비카우는 물데 강가에 자리하고 있다(Allerley aus der Feder Roberts an der Mulde)’를 출간했으며, 그가 쓴 모음집 중에는 독일 문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극문학도 있었다.

1826년 슈만의 아버지는 슈만을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68~1826)에게 보내서 작곡 수업을 받도록 할 계획을 세웠으나 베버의 죽음으로 그 계획은 수포가 되고, 베버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슈만의 유일한 누이이던 에밀리(Emilie)에 이어 아우구스트 슈만 자신도 세상을 떠난다. 그것으로 인해 슈만은 그 어느 때 보다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런 개인적인 아픔들과 나니 파치(Nanni Patsch)와 리디 험펠(Liddy Hempel)이라고 전해지는 두 소녀에 대한 풋사랑은 슈만의 정서적 경험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자전적인 소설인 ‘6월의 밤과 7월의 낮(Junisabende und Julitage)’에 두드러지게 묘사되었으며, 그 2년 뒤에 슈만은 이를 “나의 첫 번째 작품이자 나의 가장 진실 되고 훌륭한

작품-내가 그것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으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행복하였던가”라고 표현하였다.⁷⁾

이 시기에 그는 라이프찌히, 드레스덴(Dresden), 프라하(Prague), 테플리체(Teplice)까지 여행하였다. 이 때 생긴 또 하나의 버릇은 일기장, 혹은 비망록을 챙기는 것 이었다. 그가 쓴 가장 최초의 일기는 ‘소년 시절의 나날들(Tages des Jünglinge Lebens)’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그 메모에는 “악기에 붙어 앉아서 매일 즉흥 연주 연습을 하다. 악기 없이 작곡하려는 시도들을 해 보다가 f단조의 피아노 협주곡을 시작하다” 등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년 시절 슈만의 음악적인 성장과정이 엿보인다.⁸⁾

1827년 여름부터는 독일의 소설가인 장 폴(Jean Paul, 1763~1825)에 대한 그의 문학적 열정이 시작되는데, 이는 이미 만개하고 있던 그의 산문양식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슈베르트(F. Schubert, 1797~1828)에 대한 음악적 열정이 싹튼 시기도 이 즈음이다. 그 해에 작곡되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4개의 가곡으로는 ‘변용(Verwandlung, E. Schulze의 시)’, 자신의 시에 곡을 붙인 ‘X를 위한 노래(Lied für X)-요술을 부리는 요정처럼 가벼운(Leicht wie gaukelnde Sylphiden)’와 ‘동경(Sehnsucht)’, 그리고 바이런(Byron)의 시 ‘나는 그대가 우는 것을 보았네(I saw thee weep)’가 있다.

1828년 슈만은 졸업시험을 치루고 우등상을 받았으나 어머니와 후견인의 뜻을 따라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라이프찌히 대학의 법학과 학생이 되었다. 슈만은 어머니와 후견인에게 법학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시간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대신 매일 장 폴을 모방하여 글을 쓰는 일과 피아노에 앉아 즉흥 연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 때 그는 이미 가끔 정신 착란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7)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Macmillan Publishers: Groves's Dictionaries of Music), p.832

8) 위의 책. p.832.

불구하고 슈베르트의 ‘마왕(Erlkönig)’에 대해 찬탄은 그로 하여금 또 다른 피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발라드인 ‘어부(Der Fischer)’를 곧바로 작곡하게 하였다.

그 해 8월에 그는 본격적인 작곡 공부를 시작하며 저명한 피아노 교수인 프리드리히 비크(Friedrich Wieck)에게서 피아노 수업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비크의 9살 난 딸인 클라라 비크(Clara Wieck, 1819~1896)와도 알게 된다. 8월과 9월에 걸쳐 슈만은 슈베르트의 듀엣 폴로네이즈를 흥내내어 ‘네 개의 손을 위한 8곡의 폴로네이즈(VIII Polonaises pour le piano a quatre mains)곡집’과 ‘슈베르트 5중주’라고도 하는 ‘피아노 5중주’등을 작곡했으나, 그 해 11월에 동경하던 슈베르트의 죽음을 알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애도하였다.

1829년 슈만은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의 법학 교수였던 티바우트(Justus Thibaut, 1772~1840)에게 이끌려 잠시 그곳에 머문다. 음악가이기도 했던 티바우트는 ‘음악의 순수함에 관하여’라는 음악 미학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으나 음악가로서의 그는 지식이 풍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열정에 차 있는 편이었다.

슈만은 어머니와 후견인으로부터 다른 대학으로 옮길 것을 권유당해 5월에 라이프찌히를 떠났으나 다시 하이델베르크에 돌아온다. 그 곳에서 그는 친구들과의 음악모임에서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1594)와 빅토리아(Tomas Luis de Victoria, 1548~1611)로부터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와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1759)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역의 합창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름 학기가 끝나고 슈만은 스위스, 이탈리아 북부를 여행하며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La Scala)에서 로시니(Gioacchino Rossini, 1792~1868)의 <도둑까치(La gazza ladra)>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탈리아 음악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었다.

슈만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확신시켜 드린 것과는 반대로, 그는 가을학기 동안 법학 공부를 완전히 멀리 하였다. 그는 비크를 통해서 훔멜(Johann Nepomuk Hummel, 1778~1837)⁹⁾을 비롯한 슈베르트, 모셀레스, 체르니(Carl Czerny, 1791~1857)등 여러 작곡가들의 새로운 곡들을 접했다. 1830년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감상했던 파가니니의 연주는 슈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시기에 슈만은 파가니니(Niccol Paganini, 1782~1840)에 대한 열정 또한 극에 달해 있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끝이 나서 그는 법학 공부를 마저 하기 위하여 라이프찌히로 돌아가야 했다. 이 해 여름에 슈만은 주로 작곡에 시간을 보냈다. 이 때 작곡한 곡으로는 ‘피아노를 위한 왈츠’, ‘토카타(Toccata)’, ‘피아노를 위한 아베끄 변주곡(Abegg Variation)’등이 있다. ‘아베끄 변주곡’을 작곡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슈만은 그의 어머니에게 법학을 버리고 음악가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해 달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한 끝에 어머니로부터 몇 개월간의 숙고 기간을 허락받는다.

슈만은 하이델베르크와 작별을 고하고 다시 라이프찌히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슈만은 비크의 사저로 들어가 살며 비크에게 피아노 수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 피아노 수업은 비크의 신동 딸인 클라라와 함께 한다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크의 교수법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연주에 대한 실망, 그리고 토마스 학교의 악장이었던 바인리히(C. T Weinlig)에게 신청한 이론 수업을 거절당하자 그는 크게 낙담하였다.

1831년 1월 마침내 그는 당시 라이프찌히 가극장의 지휘자였던 하인리히 돈(Heinrich Dorn)에게서 통주 저음(through bass)을 배우기 시작하였다.¹⁰⁾ 그 동안 슈만은 새로운 음악적 우상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다음 아닌

9) 훔멜: 헝가리 출신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와 동 시대에 빈에서 활약했던 음악가이다. 모차르트에게 2년동안 사사받았으며, 그의 음악성은 베토벤에게도 견줄 만했으나 그만큼 널리 알려지진 못했다. 그는 근대적인 주법으로 피아노 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름답고 부드러웠던 그의 피아노 양식은 후에 쇼팽, 리스트에게 영향을 준다.

10) 마에다 아끼오, “로베르트 슈만” <음악의 유산> (서울: 중앙일보사, 1988), 제 6권, p.21.

쇼팽(Frederic Francois Chopin, 1810~1849)이었다. 그는 쇼팽의 'La ci darem에 의한 변주곡집 Op.2'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를 습득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였다.

1831년도 슈만의 가장 야심찬 작곡은 <b단조 소나타>였고, 이 곡의 1악장(파가니니의 '작은 중 주제에 의한 론도'에 의한 몇 개의 변주를 포함)은 뒤에 Op.8로 출판되었다. 1832년에는 클라라를 위한 독창적인 주제에 의한 변주곡집을 완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네 손을 위한 폴로네이즈', 새로 작곡한 피아노곡집 <나비(Papillons)>등이 Op.2로 출판되었다.

1832년 돈(Dorn)과의 대위법 수업을 그만 두게 되자 슈만은 마르푸르크(Marpurg)의 책 "푸가에 대한 논문(Abhandlung von der Fuge)"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Das Wohltemperirte Klavier)>을 실기 교재로 삼아서 독학을 했으며, 같은 해에 작곡된 '피아노를 위한 환상 소곡집(Pieces Phantastique)',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환상적 광시곡(Fandango-fantaisie rhasodique pour le pianoforte Oeuv.4)', '파가니니에 대한 연구', '간주곡들(Intermezzos)'과 '토카타(Toccat)'등은 라이프찌히의 호프마이스터(Hofmeister)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그 해 슈만은 손가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자신이 고안해 낸 연습용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기계를 사용하기 전부터 그의 손은 약해져 있었고, 그것은 매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은 중독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¹¹⁾

이로 인해 슈만은 작곡에만 전념하게 되고 좀 더 야심찬 계획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바로 교향곡이었다. 그는 옛 스승인 쿤츠에게 '총보 독해력 공부와 관현악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기도 했으며, 당시 게반트하우스(Gewandhaus) 관현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코틀리프 뮐러

11) 앞의 책. p.834.

(Gottlieb Müller)에게 관현악법에 대한 강의와 자신의 작곡에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얼마 후 그는 고틀리프와 함께 쓰비카우로 가서 그 해 겨울의 4개월을 보내며 <g-단조 교향곡> 작곡에 전념하였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가 11월 그 곳에서 연주회를 열었으며, 슈만의 <g-단조 교향곡> 또한 같은 연주회에서 연주되었다.

1833년 3월 슈만은 라이프찌히로 돌아왔다. 4월에는 계반트하우스에서 열린 클라라의 ‘그랜드 콘서트’에서 <g-단조 교향곡>의 첫 번째 악장이 연주되었다. 연주회는 성공적이었으나 슈만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이 교향곡을 완성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새롭게 작곡한 <g-단조 소나타 Op.22>와 ‘파가니니 편곡집’을 완성하였고 이를 Op.10으로 출판하였다.

7월부터 가을까지 슈만은 발열성 오한을 앓았다. 10월에는 그의 의붓 누이 로잘리(Rosalie)와 그의 형제 율리우스(Julius)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상심에 빠졌으며, 그로 인해 그는 투신자살을 시도하였다. 그 뒤로 그는 일생 동안 높은 층에서 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당시 그가 손대고 있던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의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34년 3월부터 슈만은 새로운 정기 간행물의 일에 완전히 몰입한다. 그리고 마침내 주2회 발행되는 “라이프찌히 음악 신보(Neue Leipziger Zeitschrift für Musik)” 제 1권이 4월 그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이 잡지는 곧 슈만의 문필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이 잡지는 오늘날까지 독일에 가장 역사 깊은 음악 잡지이고, 슈만은 자신의 글들을 통해 기존의 음악에 대항하여 새롭고 자유로운 음악을 주장하였다. 또한 슈만은 이 잡지에 쇼팽,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등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들을 세상에 알리고 천재성을 칭송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낮은 청년 음악가 브람스를 '베토벤의 위대한 독일 음악 전통을 이을 대가'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¹²⁾

슈만이 26세가 되던 1836년, 그는 은사의 딸인 클라라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클라라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결혼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며, 4년이 지난 1840년에야 비로소 승인이 되어 결혼이 인정된다. 둘의 결혼 생활은 더 할 것 없이 행복했다. 결혼 전에도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사랑은 술한 작품들, 특히 피아노 명곡들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1840년은 슈만의 “가곡의 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한 평생 작곡한 250여 곡 중의 절반이 이 해에 작곡되었는데, 그것은 클라라와의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Leben)>, 피아노 곡 <크라이슬레리아나(Kreisleriana)>와 '클라라 그대에게 바치는 나의 깊은 통곡'이라 부르던 <C장조 판타지(C Major Fantasy)>등이 있다. 그 중 <시인의 사랑>은 한 남성의 사랑의 기쁨과 실연의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의 시에 감명을 받아 작곡하였다. 또한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샤미소(Adelbert von Chamisso, 1781~1838)의 시에 의해 작곡한 것으로 한 남자를 처음 본 순간과 그와의 결혼, 아이를 낳는 기쁨, 그리고 그 남편을 잃은 슬픔까지 겪게 되는 여인의 사랑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피아노곡에서 가곡으로 갑작스레 전환이 되는 것처럼 가곡에서 교향곡으로의 전환도 그러했다. 1842년 슈만은 교향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내악, 특히 현악 4중주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갔다. 하지만 그 때쯤 슈만은 많이 지쳐있었으며, 그것은 슬럼프로까지 이어진다. 슬럼프는 슈만의 창작 활동에 늘 있었으나 그럼에도 슈만은 <피아노 4중주곡(Piano Quintet in E-flat Major) Op.47>, <피아노 5중주곡(Piano Quintet in E-flat Major) Op.44>와 같은 걸작을 내놓는다.

12) 김미애, <낭만주의의 불꽃 슈만의 가곡 세계: 독일 예술 가곡의 계보 5> (세광음악출판사, 1989), p. 213.

1843년에는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이 세운 라이프찌히 음악 학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가르쳤으며, 1844년에는 괴테의 <파우스트(Faust)>(1831)를 오페라로 작곡하기 위해 몇 곡을 썼지만 이것이 신경쇠약으로 이어지며 슈만과 클라라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라이프찌히를 떠나 드레스덴으로 이주한다.

드레스덴으로의 이주 이후 슈만은 문예대작 3부작을 작곡한다.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이루어진 연극의 부수 음악인 <파우스트의 정경 (Szenen aus Goethe Faust) >(1844~1853)과 <만프레드(Manfred) Op.115>(1848~1849), 그리고 오페라 <게노페파(Genoveva) Op.8>(1847~1849)가 그것이며, 이 작품들과 함께 피아노 작품 <숲의 정경(Waldszenen) Op.82>(1848~1849)을 작곡하며 그의 창작 활동은 정점에 이른다. 하지만 드레스덴의 음악계는 오페라 중심이어서 슈만의 활동 영역이 그리 넓지는 못하였다.¹³⁾

다시 라이프찌히로 옮길 것을 고려하던 중, 슈만은 뒤셀도르프(Düsseldorf)시의 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힐러(Johann Adam Hiller, 1728~1804)에게서 음악 감독의 자리를 요청 받고 그의 뒤를 이어 지휘자가 되었다. 뒤셀도르프 시대의 대형식 작품에 관해서는 최대의 결실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클라리넷(또는 바이올린과 첼로)과 피아노를 위한 실내악곡인 <환상소곡집(Phantasiestücke) Op. 73>(1849)과 비운의 여왕 서거에 의한 가곡집 <마리아 슈투아르트 여왕의 시(Gedichte der Königin Marie Stuart) Op.135> (1852), 그리고 피아노곡집 <아침의 노래(Gesang der Frühe) Op.133> (1853)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뒤셀도르프에서의 시기는 회상과 희망이 빛나는 풍부한 결실로 시작되었지만 슈만의 건강은 창작과 지휘 활동을 병행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져 그의 음악 일생에서 가장 절정의 시기에 젊은 시절부터 징후를 보인 정

13) 정예경, “슈만의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 Op. 42>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2), p.27.

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1854년 라인 강에 몸을 던지기에 이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슈만은 정신질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정신 병원에 입원하여 1856년 7월 29일 46년의 짧은 생을 마쳤다.

2) Robert Schumann의 음악 및 가곡의 특징

슈만은 문학¹⁴⁾과 철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러한 예술성을 자신의 가곡에 아주 낭만적으로 표현해냈다. 그의 초기 가곡 작품에서 피아노의 선율적인 서정성, 화성과 음색의 화려함과 풍부함, 강한 리듬 양식의 독창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슈만은 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의 언어적 아름다움의 강조, 반주부의 분위기 묘사표현에 중점을 두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낭만주의에 걸 맞는 전달을 시도하였다.

슈만은 슈베르트에 이어 독일 가곡을 계승 발전 시켰으며, 보수적인 음악을 배척하여 형식의 엄격성을 탈피한 자유롭고 새로운 음악장르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서정적인 특성과 화성적 색채라는 면에서 볼 때 비록 낭만주의적이긴 하지만 항상 고전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슈만은 풍부하고 끊임없는 낭만주의의 흐름 속에 있었다.

이러한 음악적인 스타일을 배경으로 한 슈만 가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슈만 가곡의 가장 큰 특징은 성악과 피아노가 진정한 2중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슈만 가곡에 있어서 반주부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멜로디와 상호 연관된 작용을 하며 성악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¹⁵⁾ 독일 음악에 있어서 “리트(Lied)”라는 장르가 하나의 독립된 예술 분야로 인정받기까지 슈베르트의 영향이 아주 컸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슈만의 성악곡에서는 성악과 반주가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거듭나게 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4) 슈만은 어린 시절부터 낭만주의 문인들의 저서를 탐닉하였는데, 특히 장 폴(J. Paul, 1763~1825)과 호프만(E. T. A Hoffmann, 1776~1822)의 작품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15) Carol Kimball저, 채은희(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2권> (서울: 형설출판사, 2003), p.92.

그의 반주부 특징은 성악 성부와 반주부를 분리시켜 각각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성악 성부와 교차되는 반주부분에서는 조화를 이루게 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아노가 성악 선율보다 주도권을 가질 때도 있을 만큼 그의 음악에서 반주부는 더 이상 조연적인 위치가 아니었다. 다양한 형태의 반주 패턴과 스타일을 폭넓게 구사하며 피아노 작곡가로의 대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¹⁶⁾

뿐만 아니라 슈만의 가곡 속에서 피아노 반주 부분에는 전주, 간주, 후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 전과는 다른, 보다 확장된 모습을 보이며 반주를 통해 성악이 표현하지 못한 시의 중요한 의미를 채워나갔다. 전주는 전반적으로 아주 짧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짧은 전주는 노래 분위기를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도 하였다. 반면 간주는 가곡의 각 부분을 연결해주며 전체적으로 가곡을 통일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후주의 역할은 더 부각되었다. 성악가가 노래를 끝맺은 다음에도 가곡의 분위기를 지속하고 강화시키기도 하며 성부에 대한 여운, 회상 등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가곡의 동기를 연주하고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축,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슈만 가곡은 시와 음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슈만은 시문학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깊었고 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며 곡을 작곡하였다. 그는 가곡을 위한 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문학적 취향을 보였으며 주로 후기 낭만파 시인들의 시를 통하여 시야를 넓혔다. 또한 슈만은 시인의 내면적인 감정요소를 매우 중요시 여겨 시인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감정에까지 파고들어 시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16) 장건실, “조성구조로 본 슈만의 연가곡 구상”, <음악과 민족> (부산: 민족음악협회, 1998), 제 16호, p.222.

세 번째, 슈만은 그의 가곡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화성이나 조성을 통해 자유로운 형식을 구사하였으며, 또 그것들을 통해서도 구조적인 유기성을 이루었다. 단순한 리듬과 개성적이고 자유스러운 화성을 진행시킨 슈만의 가곡은 유절형식은 드물고 주로 유절형식을 변형시킨 통절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바흐의 음악을 애호하여 온음계적 불협화음과 동형진행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⁷⁾

네 번째로는 선율의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선율은 가사에 그냥 노래를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사에서 피어나는 악상, 즉 시에서 받은 영감이 그 선율을 결정하고 다시 그 선율은 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슈만은 이러한 선율적 넓이 그 통해 전체 형식의 유기성을 연가곡에서 보여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요소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재현시켰다방식의 순환구조를 가진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그는 짧고 인상적인 모티브로 시와 음악을 연결하여 상징적인 악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다.¹⁸⁾ 그의 가곡에서 선율은 비교적 급하게 전조시켰다부분이 많으나 장식음을 사용하여 연결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전통적인 악구구조보다 컸다서정적 멜로디에 치중하여 윤곽이 뚜렷한 화성 위에 선율을 붙여 안정성 있고 과감한 선율 도약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⁹⁾ 또한 주선율과 그 주선율에서 변형된 선율을 작품 전체를 통해 반복함으로써 선율의 통일성을 이루었다.

슈만은 그의 생애에서 ‘가곡의 해’라 불리는 1840년 한 해에만 무려 138여 편의 가곡을 작곡하였다.²⁰⁾ 그것은 클라라와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전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을 모체로 한 슈만의 낭만적인 음악은 후에 브람스, 프랑크(Franz Frank 1897-1986)등으로 인해 그 흐름

17) 장건실, 위의 책, p.222.

18) 이샘, "슈만의 음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 대학교 출판부, 2005), pp.34~35.

19) 국민 연구회, <성악 문헌> (서울: 1976), p.91.

20) 민은기, <서양음악의 이해> (서울: 2001), p.164.

을 이어갔으며, 그의 시에 대한 깊은 공감과 분위기 조성 등은 프랑스 가곡, 특히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의 가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슈만은 자신의 가곡에서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 뫼리케(Eduard Friedrich Mörike, 1804~1875),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등의 시를 가사로 하여 곡을 썼는데, 그 중 괴테의 작품에 의한 곡이 자신이 작곡한 곡의 10%를 차지하는 21곡에 달한다. 괴테의 시와 작품들은 여러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일으켰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할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도 슈베르트, 볼프(Hugo Wolf, 1860~1903),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와 같은 작곡가들이 이 작품 중의 시를 가사로 하여 곡을 썼다.

본 논문에서는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중의 미뇽의 시를 가사로 한 슈만의 ‘미뇽의 노래(Lied der Mignon)’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곡에 나타난 슈만의 음악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곡의 해석이나 악구를 분석함으로써 성악가들에게 필요로 하는 음악적 표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괴테의 생애와 작품, 그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를 다룸으로써 소설의 내용과 소설에 나타난 괴테의 사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1) 괴테의 생애와 작품

독일의 시인, 고전파의 대표자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1749년 8월 마인(Main) 강변에 있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엄격한 아버지와 활달하고 지적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부유한 상류가정에서 자란 괴테는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²¹⁾ 그는 특히 라틴어 등의 어학 공부에 뛰어났고, 많은 독서를 하며 종교 교육도 받았다.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7년 전쟁으로 프랑스 군대의 점령 하에 있었으므로, 괴테는 일찍부터 프랑스 연극을 감상하면서 한 층 더 감성적인 소년이 되었다.

16세 되던 해에 괴테는 부친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라이프찌히(Leipzig)로 가게 되었다. 당시 작은 파리라고 불리던 로코코풍의 이 정취 있는 도시에서 괴테는 법학이나 문학 강의보다는 그 도시의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매혹되었고, 특히 음식점 주인의 딸인 카타리나(Katharina)라는 예쁘고 상냥한 여자와의 첫 사랑은 그의 최초의 희곡 <여인의 변덕>(1767)을 낳게 하였다.

자유분방한 청춘시절을 보내던 괴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남은 공부를 위해 곧 다시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로 떠난다. 1년 반 남짓 되는 이곳에서의 생활은 괴테에게 큰 의미와 변화를 준다. 그것은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²²⁾를 만났기 때문인데, 그는 괴테에게 하만(Johann Georg

21) 헤르만 슈라이버, 김정희외역, <세계를 빛낸 사람들-문학과 예술가편>, (서울: 온누리, 1994), p.119.

22) 헤르더: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학자. 직관주의적,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앞세우는 입장에서 칸트의 계

Hamann, 1730~1788)의 몽환적, 신비적인 사상과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 그리고 민속 문학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1770년에 접어들면서 괴테의 서정시는 자연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한 문학 사조인 “질풍노도의 시대”를 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괴테의 천재적인 창작 경향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1774)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된다. <베르테르>가 세상에 나오자 이 작품은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주인공인 로테와 베르테르는 모든 젊은 남녀의 우상이 되고 말았다. 이 작품이 당시 그렇게도 많은 독자층을 열광시킨 것은 단순한 사랑의 고뇌를 넘어서는 어떠한 자유와 감정의 의지가 사회의 무거운 장벽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게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젠하임(Sesenheim)의 목사의 딸 브리온(Friderike von Brion)과의 사랑은 그의 유명한 시 <환상과 이별>, <오월의 노래>등을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775년 11월 괴테는 바이마르(Weimar)의 젊은 대공 카를 아우구스트(Karl August, 1757~1828)의 초청을 받고 바이마르로 가서 여러 공직을 거치며 10년 남짓 국정에 참여하였다. 이 동안 그는 정치적으로 치적을 쌓는 한편, 지질학과 광물학을 비롯하여 자연과학 연구에도 몰두하였다. 창작에 전념할 시간은 별로 없었으나 이곳에서 그는 자연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헤르더, 크네벨(Karl Ludwig von Knebel, 1744~1834), 빌란트(Christoph Martin Wieland, 1733~1813)²³⁾등과 친교를 가졌다.

괴테의 생애와 문학에서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 일은 1786년에서

몽주의적 이성주의 철학에 반대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인류역사철학고>, <언어의 기원에 대한 논고>가 있다.

23) 크네벨: 독일 문학에 많은 공적을 남긴 소설가이자 시인. 유머나 위트를 독일 문학에 도입하였으며, 역사소설을 개척하는데 큰 업적을 세웠다.

1788년 사이의 이탈리아 여행이었다. 행정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 준 이 전원적인 여행은 괴테 자신의 존재와 예술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게 되며, 로마에서 접한 고대 예술의 영향으로 그는 고전주의(Classicism)정신으로 전향하게 만든다. 이러한 전향은 두 희곡을 집필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타우리스 섬의 이피게니(Iphigenie auf Tauris)>(1787)와 <에그몬트(Egmont)>(1787)가 있다. 이 작품들은 괴테가 고전주의를 꽃피우게 한 작품으로 정평을 받고 있다.

1788년에는 조화업을 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 크리스티아네(Christiane)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가정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1806년 정식 결혼을 하게 된다. 이 무렵에 그는 시인과 궁정인의 갈등을 그린 희곡 <타소(Torquato Tasso)>(1789)와 관능의 기쁨을 노래한 <로마 애가>(1790)를 발표하였으며, 과학논문 <식물변태론>²⁴⁾도 이 시기의 산물이다.

이탈리아 여행 후 괴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1794년부터 이루어진 쉴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와의 교우이다. 서로 성향과 견해가 다르던 이 두 사람은 문학 활동에서만큼은 서로 협동하여 시를 쓰기도 하였으며, 서로간의 도움으로 쉴러는 <발렌슈타인(Wallenstein)>(1799)을 괴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1796)를 완성하게 되었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괴테의 작품 경향이 고전주의로 확립되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독일 문학사에서 소설이란 장르가 인정받는데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아름다운 인간애의 상징이 되었으나, 열 살이나 어렸던 쉴러의 이른 죽음으로 괴테는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괴테는 1814년 라인 지방을 여행하며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되고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관심은 괴테로 하여금 ‘문학이란 인류 공동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

24) 식물 변태론: 괴테의 모범적인 저술로 그리스의 고대 양식에서 인간의 원형을 모색하고 발견했듯이 그러한 개념을 식물에까지 넓게 조명한 저서이며, 식물의 모든 부분이 원형 잎이 변형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 주요 명제이다.

였다.

후기 작품 중에 괴테가 가장 열정을 쏟았던 작품은 <색채론(Zur Farbenlehre)>(1810)과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Wilhelm Meisters Wanderjahre)>(1829), <파우스트(Faust)>(1831)이다. <색채론>은 그의 광학(光學) 연구의 결정이며, 여기에는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이론에 대한 잘못된 비판이 들어 있어 순 학문적인 견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나, 그의 탁월한 관찰과 견해가 들어있다. <파우스트>는 한 인간의 생애가 전 인류의 역사에 뒤지지 않는 깊이와 넓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드라마이다. 착상에서 완성까지 그 어느 작품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제작된 <파우스트>는 괴테가 23세이던 1772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죽기 1년 전인 1831년에야 완성된 생애의 대작이며, 세계문학 최대결작의 하나이다. <파우스트>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대작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은 당시의 시대와 사회를 묘사한 걸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괴테는 이러한 세계 최고의 걸작을 남기고 자서전이 완성될 무렵인 1832년 3월, 83년의 생애를 마감하였다.

괴테는 단테(Alighieri Dante, 1265~1321),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3대 시성으로 불려진다. 괴테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문학으로 구체화시킨 시인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시의 내용은 곧 생활의 내용이었다. 괴테의 시는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신비로움이 있으며 삶, 사랑, 자연 그리고 때로는 세속적, 시대적 사건들이 주제였다.²⁵⁾

괴테는 가능한 한 시의 감상과 해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곡된 음악을 이상적인 가곡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음악이 시의 절과 연, 구두점과 낭독 법까지 포함하여 시의 세부적인 특성을 아주 세밀하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가 여러 연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각각의 연은

25) 장영태, <괴테의 명시>, (서울: 세계 출판사,1988), p.185.

똑같은 멜로디를 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괴테의 시는 그 자체로서 이미 훌륭한 음악언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나다. 괴테는 인간생활의 모든 면을 시로 표현하였으며, 예리한 지성과 감수성, 풍부한 상상력을 모두 갖추고 그것을 시구로 나타내었다. 그의 시는 자신의 인생을 그린 새로운 형식의 체험적인 시로 예술미가 풍부한 아름다운 시가 되었다.²⁶⁾ 괴테는 자신의 희곡, 산문 작품 중 많은 시들이 음악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좋아했으며 또 자신의 모든 시들이 노래로 불러 지기를 원했다.

괴테의 작품들은 그 소재들이 매우 광범위하여서 독일의 민요를 비롯하여 영국, 이탈리아 음악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괴테의 작품은 18~19세기에 걸친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수많은 가곡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독일가곡의 역사는 괴테와 더불어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²⁷⁾

26) 서석연, <질풍노도시대의 괴테의 서정시 연구>, (서울: 삼광출판사, 1987), p.189.

27) 서석연, 위의 책, p.189.

2) 소설 <Wielhelm Meister>의 내용과 소설 속에 나타난 미농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의한 '미농의 노래'를 분석하기에 앞서 소설의 대략적인 내용과 소설 속 등장인물인 미농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깊이 있는 이해와 올바른 악곡 해석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농의 노래'는 괴테의 2부작 장편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중 제 1부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²⁸⁾에 나오는 시이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Wielhelm Meisters Theaterliche Sendung)>은 괴테의 자서전식 장편소설로 1777년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빌헬름 마이스터>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나중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출판되었다.

18세기 중엽 이래로 독일에서는 시민 계급의 정치적 결속이 결여되자 무대를 통하여 국가의 정신적 결속의 반영 및 세계시민문화에 이바지 하고자 연극을 중요히 부각시켰다. 연극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정신과 문학으로 직결되는 유일한 기능이기도 하여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괴테는 연극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교양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²⁹⁾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부터 연극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부유한 상인의 아들 빌헬름(Wielhelm)은 떠돌아다니던 유랑극단의 단원인 마리아네(Mariane)를 만나

28)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이 작품은 교양 소설로 분류되는데, 교양소설이란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갖가지 체험을 쌓으면서 성장, 발전하여 인간으로서의 자기 형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

29) 오한진, <독일 사회 소설론> (서울: 전예원, 1977), p.27.

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것도 포기한 채 모든 관심을 연극으로 돌린다. 그는 마리아네와 사랑을 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려했으나 그녀의 부정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단념한 채 여행길에 오른다.

여행 중 빌헬름은 한 도시에서 연극배우인 필리네(Philine)와 라에르테스(Laertes)라는 두 배우를 만난다. 그들과 함께 서커스 구경을 하던 빌헬름은 그곳에서 신비에 쌓인 하프 타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서커스단에서 학대를 받고 있던 미농(Mignon)이라는 이탈리아계 소녀를 구출해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미농의 할아버지는 아들 셋 외에 딸년에 딸 스페라타(Sperata)를 하나 얻게 된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그 딸을 비밀리에 낳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 딸 근처에 살며 왕래한다. 그러던 중 사제였던 둘째 아들 아우구스틴(Augustin)은 스페라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살기 위해 사제직을 버리려 한다. 그는 나중에 스페라타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 둘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녀가 바로 미농인 것이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미농은 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급기야 서커스단에 납치되어 고향 이탈리아를 떠나게 되고 그녀의 아버지인 하프 타는 노인은 납치된 딸을 찾아 헤매며 방랑 생활을 시작한다.

빌헬름의 도움으로 서커스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미농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하프 타는 노인과도 함께 지내게 되지만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끝내 알지 못한다. 미농과 하프 타는 노인은 서로의 관계를 몰랐으나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서 서로가 부너지간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사실은 소설의 끝에 밝혀진다.

미농은 자신을 구해준 빌헬름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아들 펠릭스(Felix)도 돌보았다. 미농은 빌헬름의 곁에 있으며 사실상 그를 사랑하여 그와 연애하는 여인들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경

계한다. 빌헬름은 아버지 같은 애정으로 그녀의 보호자가 될 것을 맹세하지만 그녀의 빌헬름에 대한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 미농은 병마에 시달리며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주인공 빌헬름을 둘러싼 인물들은 극히 다채로우면서도 제 각기 분명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농과 그녀의 아버지인 하프 타는 노인은 소설 속의 많은 인물과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다. 이들의 운명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제이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하프 타는 노인 아우구스틴의 운명에서 죄와 후회의 깊이를, 미농에게서 가특한 여성의 동경을 느끼게 한다.

"Mignon"은 원래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동성의 친숙한 사람에게 부르던 호칭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귀염둥이', '애인'의 뜻을 가지고 있다.³⁰⁾ 소설 속 미농은 매우 신비로운 이국적 외모로 검은 피부에 작은 키, 나이를 알 수 없는 소녀로 묘사되지만 아이가 아닌 아이와 처녀의 중간쯤인 것으로 보인다.

소설 속에서 빌헬름의 인격 형성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미농은 어떤 때는 '그'라고 불리고, 또 다른 때는 '그녀'라고 불리는 양성적 성격을 가진 신비스런 인물로서, 자연 그대로의 아이 같은 면과 요정 같기도 하며 때론 작은 악마 같기도 한 종잡을 수 없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

미농의 모습 속에는 처음에 보이던 여성적 성격이 배제되고 남성이 되고픈 욕망이 열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그녀의 움직임은 점차 다시 여성화가 된다. 신비로우면서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성격의 미농은 빌헬름을 위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던 신비스런 달걀 춤을 추는데 이것은 자신의 본질을 암시하는 은밀한 상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달걀은 근

30) 조두환, <독일 시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0), p.153.

친상간적 교류에서 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농의 탄생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달걀에는 남성과 여성의 핵이 동시에 들어 있어 남녀 양성적인 미농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와 유리된 인물이기도 한 미농은 괴테의 작품 속에 나오는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독특한 인물로서 감성적이고 정열적이면서도 남성적이기도 한 신비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낭만주의 시대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들의 많은 음악적 소재가 되었다.³¹⁾

31) 본 장의 내용은 아래의 책을 참고하였다.

안삼환 역, Johann Wolfgang von 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서울: 민음사, 1996).

Ⅲ. <Wilhelm Meister>에 의한 Robert Schumann의 가곡 “Lied der Mignon”분석

1. Kennst du das land (그 나라를 아시나요) Op.98a No.1

1) 시의 해석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en,	그 나라를 아시나요? 꽃이 번창하고
Im dunklen Laub die Goldorangen glühen,	그늘진 잎 속에서 금빛 오렌지 빛나고
Ein sanfter Wind vom Blauen Himmel weht,	푸른 하늘에선 부드러운 바람 불며,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월계수가 드높이 서 있는 그 곳을 아시나요?
Kennst du es wohl?	그 땅을 아시나요?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그곳으로, 그 곳으로 가고 싶어요!
O mein Geliebter, ziehn.	당신과 함께, 오 내 사랑이여!

Kennst du das Haus?	당신은 그 집을 아시나요?
Auf Säulen ruht sein Dach.	둥근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고, 광채
Es glänzt der Saal, es schimmert das Gemach, und Marmorbilder stehn und sehn mich an:	가 나는 홀과 빛나는 방, 대리석들이 서 있고 대리석 입상들이 날
Was hat man dir, du armes	바라보며 가엾은 아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kind getan?
Kennst du es wohl?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Kennst du den Berg und seinen
Wolkensteg?
Das Maultier sucht im Nebel
seinen Weg;
In Höhlen wohnt der Drachen
alte Brut,
Es stürzt der Fels und über ihn
die Flut!
Kennst du ihn wohl?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ß uns ziehn!

물어주는 그 곳
당신은 그 곳을 아시나요?
그 곳으로, 그 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오 내 보호자여!

당신은 구름으로 뒤덮인 그 산을
아시나요?
노새가 안개 속에 제 길을 찾고 있
고
동굴 속에선 해묵은 용들이 살고 있
으며,
무너져 내리는 바위위로는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곳.
그 곳을 아시나요?
우리의 길이 뻗어있어요!
오, 아버지! 우리 그 곳으로 가요!

“Kennst du das Land (그 나라를 아시나요)”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제 3권 제1장의 첫 부분에 나온다. 빌헬름은 극단의 단원이 되기 위해 미농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알리는데, 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그를 사랑하는 미농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 이런 미농에게 동정을 느낀 빌헬름은 그녀를 데리고 있겠다고 약속을 한다. 다음 날 아침 미농은 빌헬름의 방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이 시에 나오는 소재인 자연과 동굴, 용들은 추상적이고 환상적이며 자기 그리움의 실현에 도달하기 힘든 미농의 심리를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는 총 21행의 길이를 가지며 7행씩 3연으로 나누어진다. 1연에서는 이탈리아의 자연을, 2연에서는 이탈리아의 예술, 그리고 3연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돌아오는 알프스의 협로를 그리고 있으며 그 길은 미농이 납치당해 넘어온 길이기도 하다. 세 개의 연이 모두 미농의 고향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으며 각 연의 마지막에는 '내 사랑', '내 보호자', '내 아버지'라는 가사를 호격으로 부르고 있어 빌헬름에 대한 미농의 애타는 동경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³²⁾

특히 2연에 나오는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tan?(가없는 아이야, 무슨 몹쓸 일을 당했느냐?)'라는 구절이 미농의 납치되어 온 기억을 나타내고 있다. 3연의 3행부터는 시의 내용이 다소 음침하고 암울해졌음을 볼 수 있고, 뒤이어 나오는 'Kennst du das Land?(그 나라를 아시나요?)'에서는 비밀에 가득 차 있는 듯 신중하고, 'Dahin, dahin!(그곳으로, 그곳으로!)'라는 부르짖음 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동경이 숨 쉬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가사인 'Geht unser Weg!(우리 그리로 가요!)'라는 대목을 되풀이 할 때에는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처럼, 때로는 촉구하고 기대하는 듯 감정의 변화가 많음을 엿볼 수 있다.³³⁾

32) 안삼환(역), 앞의 책, pp.195~196.

33) 김종홍,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를 중심으로 한 고전과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음악어법 비교분석”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p.17.

2) 곡의 분석

제 1곡인 “Kennst du das Land”은 총 81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Langsam, die beiden letzten Verse mit gesteigertem Ausdruck, ♩=69 (느리게, 마지막 두 절은 점점 더 많은 표현을 가지고)의 변화 없는 느린 빠르기를 가진다. 조성은 전체적으로 g단조로 구성되며 박자는 3/8로 일관되어 있다. 시의 세연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변형 유절 가곡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악곡은 절을 거듭할수록 가사의 내용에 따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곡의 형식 구조는 <표1>과 같다.

<표1>

형식	A			A			A'		
구분	전주	1절	후렴	간주	2절	후렴	간주	3절	후렴
마디	1~4	5~19	19~27	27~30	31~45	45~53	53~57	57~71	71~81
조성	g	d-g	g	g	d-g	g	g	d-g	g
대상	애인			보호자			아버지		
박자	Langsam (느리게)								

이 곡은 A-A-A'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분은 전주부와 후렴을 포함하고 있다. 길이와 조성관계도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되는 유절 가곡의 특징을 보여준다. 조성은 g단조이나 중간에 딸림조인 d단조로 전조되며, 성

악 선율의 음역은

F#5-A6의 10도로 비교적 좁게 나타난다.

A부분은 마디 1~27에 해당하며 전주부-1절-후렴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마디 1~4의 전주부는 반음계적으로 순차 하행하는 8분 음표 리듬의 하성부와 16분 음표 리듬의 상성부로 구성된다. 이 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하성부와는 대조적으로 상성부는 넓은 음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시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롭고 낭만적인 화성의 사용은 슈만 가곡에서 보여 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전주부는 간주부에서도 변화 없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악보 1> 참고)

<악보 1> Kennst du das Land 전주부 (마디 1~4)

이제 노래에 나타난 슈만의 작곡 기법과 시와 음악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2행의 ‘dunklen Laub(그늘진 잎새)’에서 ‘dunklen(그늘진)’은 형용사로 ‘Laub(잎새)’을 꾸며주는데 ‘dunklen’을 강박으로 표현하여 ‘Laub’보다 강조하여 시의 어두운 분위기표현에 치중하였으며 ‘Laub’에서는 32분

음표를 써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장식적인 음형으로 표현하였다. (<악보 2> 참고)

또한 ‘Ein sanfter Wind(부드러운 바람)’은 시어의 뜻을 아르페이지오의 선율로 표현하였다. (<악보 3> 참고)

<악보 2> Kennst du das Land (마디 6~9)

Land, wo die Zi - tro - nen blühen, im dun - keln Laub die Gold - o - ran - gen glühen,

<악보 3> Kennst du das Land (마디 10~13)

ein sanf - ter Wind vom blau - en Himmel weht, die

마디 10부터 시작되는 반주부의 3연음부에서는 미농이 고향의 바람과 하늘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선율은 가볍게 진행되다가 부풀어 오르는 멜로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점 풍성해져야 한다.

슈만은 ‘Dahin!(그곳으로!)’을 향해 절정에 이르는 부분에서 반주부에 두터운 화성과 성악선율의 4도 상행도약 음정을 두 번씩 써서 강조를 하였다.³⁴⁾ 또한 ‘Dahin!’과 ‘Geliebter(사랑하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악센트가 들어가는 ‘-hin’과 ‘-lieb’을 강박에 두고 긴 음가로 강조하였으며, 그 외의 음표들은 16분 음표의 짧은 음가로 처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슈만이 가사에 따른 셈여림이나 음정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작곡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악보 4> 참고)

34) 정복주,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중 미농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가곡, (음악 연구 19집, 1999), p.13.

<악보 4> Kennst du das Land (마디 21~28)

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da - -

hin, da - hin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dimin. *p*

dimin. *p*

후렴구에서는 노래가 끝나는 느낌을 주는 코드 이후에 노래선율의 시작 부분을 다시 삽입함으로써 미몽의 고향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표현하는 반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악보 5> 참고)

<악보 5> Kennst du das Land (마디 76~81)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Kennst du das Land'. It consists of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is in G major and 4/4 time, starting with the lyrics 'hin, da - hingehet unser Weg, o Va - ter, laß uns ziehn!'.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dimin.' marking and a 'pp' dynamic. The score ends with a 'Ped.' marking and an asterisk.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미몽의 그리움을 1, 2, 3절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2절에서는 자신의 납치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3절에서 그 기억이 더욱 또렷하게 나타난다. 성악가는 각 절마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 노래해야 하며, 특히 3절에서는 미몽의 아픈 기억을 더욱 섬세하고 풍성하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2.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Op.98a

No. 3

1) 시의 해석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오직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Weiß, was ich leide!	나의 고통을 알 수 있네.
Allein und abgetrennt	다만 나는 홀로
von aller Freude,	내 모든 즐거움을 떠나
seh ich ans Firmament	외로이 높은 하늘만 바라보네.
nach jener Seite!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저 먼 곳에 있다
ist in der Weite,	내 눈이 어지럽고, 이 가슴이
Es schwindelt mir,	타는구나.
es brennt mein Eingeweide.	오직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고통을 알 수 있네. ³⁵⁾
Weiß, was ich leide!	

“Nur wer die Sehnsucht kennt(그리움을 아는 자만이)”는 <빌헬름 마이스터> 제 4편 11장에 나오는 시이다. 빌헬름은 극단의 무리와 함께 여행길을 떠나던 중 도적 떼를 만나 부상을 입게 되는데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받게 된 후, 그 여성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어 꿈꾸는 듯 한 동경에 잠기게 된다. 그녀를 그리워하는 빌헬름의 모습을 보면서 미몽 또한 빌헬름을 그리워하는데 그 때 하프 타는 노인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다.

35) 안삼환(역), 앞의 책, pp.329~330.

이 시는 전체적으로 동경과 그리움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미뇽은 어린 시절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를 서커스단에서 구해준 빌헬름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빌헬름 또한 미뇽의 노래를 들으며 자기를 구해준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속에 생겨난다.

2) 곡의 분석

제 3곡인 “Nur wer die Sehnsucht kennt”는 총41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Langsam, sehr gehalten(매우 느리게), $\downarrow=63$ 의 기본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 마디 12~33까지는 Schneller의 템포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느리고 감동적인 선율의 감정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마디 34~41은 다시 처음과 같은 Langsam으로 되돌아온다. 조성은 제 1곡과 마찬가지로 g단조로 이루어지며, 박자는 3/4박자로 일관되고 2절로 나누어지는 변형 유편 가곡의 형태이다. 이 곡은 제 1곡과 조성, 빠르기, 박자, 선율 진행이 유사하다.

이 곡의 형식 구조는 <표2>와 같다.

<표2>

형식	A	A'	후주
마디	1~17	17~33	34~41
조성	g-B b	g-B b -E	g
박자	Langsam(느리게)	Schneller(빠르게)	Langsam(느리게)

이 곡을 살펴보면 A-A'-후주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조성은 g단조를 중심으로 변화한다. 성악 선율의 음역은 F5-A b 6의 10도이며 이것 또한 제 1곡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각 곡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슈만은 독특하게도 중요한 단어를 약박에 배치함으로 역강조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³⁶⁾ 반주부의 거의 모든 마디에 임시표를 붙여 끊임없는 전조를 함으로써 시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선율을 붙였고, 반주부에서 독창부의 선율을 길게 혹은 짧게 계속적으로 나타내며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 독창부와 2중주를 이루는 효과를 주었다. 마디 5~7에서 보이는 왼손 반주부의 반음계적 진행은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나는 홀로 모든 즐거움을 떠나)'를 표현한 것이며, 마디 8~11의 반주부 왼손 선율은 성악 선율과 반진행하며 2중주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성악가와 반주가 한 호흡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악보 6>참고)

p로 시작된 노래는 점점 *cresc.*하여 *f*까지 이르렀다가 마디 12부터는 점점 빨라져 마디 16의 A b 'es brennt'를 정점으로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마디 16의 상승형 아르페이지오 형태의 반주는 오직 이 마디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es brennt(가슴이 타네)'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반주부를 조금 더 강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마디 12~17의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ist in der Weite (나의 사랑하는 이는 멀리 있네)'는 가사를 매우 빠르고 단숨에 얘기하듯 표현하며 미농의 그리움을 낭송적으로 얘기하듯이 노래한다. 반주부는 전체적으로 이음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빌헬름이 자신의 옆에 있지만 그리우며, 그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미농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36) 강여정, "괴테의 서정시 <미농의 노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44.

특히 마디 18~19에 나타난 ‘Sehnsucht(그리움)’이라는 단어는 이 곡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슈만은 이 단어를 옥타브로 도약하는 음정을 사용함으로써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7> 참고)

<악보 6>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마디 5~11)

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seh-ich ans
 Fir-mament nach-je-ner Sei-te! Ach! der mich liebt und

<악보 7>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마디 9~20)

후주부는 마디 38~41의 4마디에 해당하며 앞의 반주부에서 나타났던 셋잇단음표 리듬의 반주와 반응계적으로 순차 진행되는 하성부 선율이 하행하면서 곡 전체의 고통스런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며 조용히 마무리된다. 또한 상성부에 성악 선율의 마지막 프레이즈와 후렴구가 자연스럽게 선율이 맞물려져 성악 선율과 반주부가 연결되어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악보 8> 참고)

<악보 8>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마디 37~41)



이 곡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4개의 곡 중에서 미농의 그리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곡으로, 가슴이 타는 듯 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슬프게 부르기도 하고 또 가슴 속의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듯 터뜨리며 노래하기도 한다. 짧은 곡이지만 그 안에 미농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성악가는 미농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표정에서도 미농의 심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래하여야 한다.

3.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내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해주세요) Op.98a No.5

1) 시의 해석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Denn mein Geheimnis ist mir
Pflicht;
Ich möchte dir mein ganzes Innre
zeigen,
Allein das Schicksal will es nicht.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Zur rechten Zeit vertreibt der
Sonne Lauf die finstre Nacht, und
sie muß sich erhellen;

Der harte Fels schließt seinen
Busen auf, mißgönnt der Erde nicht
die tiefverborgnen Quellen.

Ein jeder sucht im Arm des
Freundes Ruh, dort kann die Brust in
Klagen sich ergießen;
Allei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ßen.

내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춰진 나의 의무니까
요.
난 내 마음을 당신께 보여주고 싶지만
운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해주세요!
때때로 때가 되어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두운 밤은 쫓겨나고, 제 정체를 밝히
죠.

단단한 바위도 제 가슴을 풀어헤쳐 깊이
감춰진 샘물을 대지에 선사하죠.

누구나 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가슴에 맺힌 한 풀 수 있어도,

내 입술은 굳게 닫혀,
오직 신만이 열 수 있어요!³⁷⁾

37) 앞의 책, pp.497~498.

이 시는 <빌헬름 마이스터> 제 5권 16장에 나온다.

16장은 로타리(Lothario)에게 버림받은 아우렐리(Aurelie)가 병들어 죽어가며 로타리오에게 남긴 편지를 전해주려 빌헬름이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다. 이 시는 소설 속에서 내용이 연결되어 나오는 시가 아니라 미뇽이 낭송했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길을 잃은 미뇽은 우연히 그 곳에 있던 광대들에게 강제로 납치된다. 미뇽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들은 더 먼 곳으로 그녀를 데려간다. 이로 인해 어린 미뇽은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는데 이 때 성모마리아가 나타나 미뇽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뒤 미뇽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녀의 집과 출생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그것이 이 시에 나오는 '비밀', '의무', '운명'의 배경이다.

2) 곡의 분석

제 3곡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내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해주세요)”는 총 62마디이며, Mit freiem leidenschaftlichen Vortrag(자유롭고 열렬하게 연주)와 *ritard.*, *Langsamer*, *Schneller*, *Adagio*등의 잦은 빠르기 변화를 가지며, 4/4박자, c단조의 조성으로 중간에 잦은 전조를 포함한다.

제 3곡의 형식 구조는 <표3>과 같다.

<표3>

형식	A	B	C	Coda
마디	1~16	17~31	32~54	55~62
가사	1연	2연	3연	1연 1행 3연 3~4행
구성	c-A-D b -A b -c	C-G-C-D-a	a-E-a-F	f-C
빠르기	Schneller	Langsam	Schneller	Adagio

이 곡은 A-B-C-Coda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은 갖은 조성의 변화를 가진다. 조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c단조에서 시작하여 C장조로 마치는 구성인데, 이러한 단조-장조의 조성관계는 낭만주의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조성적인 특색이다.³⁸⁾

성악 선율의 음역은 B₃-G₆의 13도로 제 1곡과 제 2곡에 비하여 넓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조성, 빠르기의 변화와 함께 *cresc.*, *fp*, *sf*와 당김음 리듬이 격정적인 미농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곡에서 슈만은 음악의 흐름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며 나름대로 자신의 문학적인 해석을 첨가하였다.³⁹⁾

38) 오주현,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와 슈만의 <괴테에 의한 미농의 노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2), p.43.

39) 정복주,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중 미농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 가곡, (음악 연구 19집, 1999), p.19.

전주는 서로 반진행하는 상, 하성부의 5성부 화성 진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임시표를 많이 포함한 다양한 화성을 보인다. 성악 선율은 주로 반음 관계의 음정과 도약 음정의 연속적인 진행이 나타나며 연속되는 상승음(마디 2~3)과 갑자기 떨어지는 하행진행(마디 5)과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표, 속도의 변화로 미봉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다. 전주를 포함한 마디 3의 성악 선율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안정되고 힘 있게 표현해 주어야 하며, 마디 5부터는 조금 작아져서 이와는 대조될 수 있도록 극적인 리듬과 악상을 살려준다. (<악보 9> 참고)

<악보 9>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마디 1~8)

Mit freiem leidenschaftlichen Vortrag. Op. 98a, No. 5
ritard.

Heiß mich nicht re - den, heiß mich

schweigen! denn mein Ge - heim-nis ist mir Pflicht! Ich

Langsamer. Schneller.

마디 8~9의 'Ich möchte dir(나는 ~하길 원한다)'는 미봉의 내적인 생각을 공감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다. 또한 마디 10~12에서 성악선율은 하행하고 있으나 반주부에는 *sf.*가 나타남으로 반주가 노래를 리드해 나가는 부분이며, 마디 15~16에서는 성악가가 *Langsamer*의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걱정적이던 분위기를 충분히 가라앉히도록 한다. 이러한 화성구조와 성악 선율은 미봉의 고통과 불확실함을 그려내며 흔들리다가 마디 16의 'Zur rechten Zeit(때때로 아침이 되면)'에서 강하게 토로하는 미봉의 심리를 표현하듯 장조로 전조된다.⁴⁰⁾ (<악보 10> 참고)

<악보 10>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마디 9~16)

möch-te dir meinganzes Inn-re zei-gen, al-lein das Schicksal will es
 nicht.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Zur
Langsamer.

40) Carol Kimball저, 채은희(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2권> (서울: 형설출판사, 2003), p.107.

<악보 10>의 마디 15부터는 빠르기가 Langsamer로 느리게 변화되고 성악 선율은 마디 14까지의 음역보다 낮으며, 반음계적 진행을 포함한 순차 진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디 17부터 반주의 상성부에 나타나는 당김음의 사용은 때를 기다리는 미농의 인내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11> 참고)

<악보 11>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마디 17~20)

이 곡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마디 30부터는 빠르기가 und nach Schneller(빠르게)로 변화되었으며, 조성도 F장조로 바뀌어 시작된다. 여기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마디 31부터의 반주 부분이 마디 17~20보다 당김음이 더 빈번히 사용되고 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며, 거기에 상, 하성부가 동시에 연주되어 강한 리듬감을 준다. 성악 선율은 조심스럽게 작아지며 자신의 처지를 아무에게도 말 할 수 없는 미농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와는 다름을 탄식하듯 노래한다. (<악보 12> 참고)

<악보 12>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마디 29~36)

und nach schneller. *f* *p* *cresc.*
 Er - de nicht die tief - ver - borg - nen Quel - len. Ein je - der sucht im
 und nach schneller. *f* *sf* *p* *cresc.*
 Arm des Freundes Ruh, dort kann die Brust in Kla - gen sich er -

마디 43~53은 C부분이 종결되는 부분으로 모호한 내용의 가사와 1도가 아닌 5도로 성악 선율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마디 47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반주는 코다 부분의 반주 형태를 예시하고 있는데 하성부는 긴 길이의 지속음, 상성부는 중성부와 더불어 진행되는 화성 진행의 형태를 띠면서 처음 간주 부분에 나왔던 극적인 효과를 반주부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악보 13> 참고)

<악보 13>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마디 43~53)

mag sie auf - - zu - schlie - ßen,

nur ein Gott!

마지막 Adagio부분은 슈만이 제 1연의 1행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내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해주세요)’와 제 3연의 3, 4행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ßen(내 입술은 맹세로 굳게 닫혀 오직 신이 아니면 열 수 없어요)’를 반복 삽입하여 강조한 부분으로 이에 따라 후주로 쓰인 코드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밀스런 느낌으로 충분한 울림을 갖도록 한다. 성악가도 미봉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며, 낮은 음역이지만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신비스런 느낌으로 노래해야 한다. (<악보 14> 참고)

<악보 14>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마디 55~62)

Adagio.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 zu - schlie ßen!

ritard.

ritard.

4.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내 모습 이대로 두어요)

Op.98a No.9

1) 시의 해석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Zieht mir das weiße Kleid nicht aus! Ich eile von der schönen Erde Hinab in jenes feste Haus.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Ich lasse dann die reine Hülle, den Gürtel und den kranz zurück.	내 모습 이대로 두어요, 바라는 대로 될 때까지 나는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저 어두운 집 으로 달려가겠어요. 그 곳에서 고요하게 잠시 쉬고 나면 내 눈이 열릴 거예요. 그 때는 이 순수한 옷과 허리띠와 화관 은 남겨두지요.
Und jene himmlischen Gestalten, Sie fragen nicht nach Mann und Weib, Und keine Kleider, keine Falten Umgeben den verklärten Leib.	저 천국의 형상들, 그들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어떠한 의복이나 장식으로도 변환된 자 신의 모습을 감싸지 않아요.
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g Vor Kummer altert ich zu frühe, Macht mich auf ewig wieder jung!	비록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 깊은 아픔도 충분히 느꼈답니다. 슬픔으로 인해 너무 일찍 늙어버렸죠. 다시 나를 영원히 젊게 해주세요! ⁴¹⁾

41) 안삼환(역), 앞의 책, pp.741~742.

이 시는 <빌헬름 마이스터> 제 8권 2장에 나오는 시로 미농에 관한 9개의 노래 중 마지막 곡이다. 이 시는 천사 옷을 입고 연극 무대에 섰던 미농이 연극이 끝난 후 옷을 벗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듯 미농은 구슬픈 가락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빌헬름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이다. 이 노래에서 죽음은 꼭 슬픔만이 아니라 미농의 이상향, 즉 미농이 그리워하는 밝은 세계에로의 전향이며 이승에서 성취가 불가능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이 곡에서 미농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를 볼 때 미농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곡의 분석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내 모습 이대로 두어요)”는 총 54마디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Langsam ♩=76의 일관된 빠르기와 3/4박자, G장조의 조성을 가지며 딸림조와 나란한조로의 짧은 전조만 나타난다. 박자와 조성, 빠르기는 제 1곡과도 유사성을 보이며,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인 단조-장조(g-G)의 조성관계가 이 곡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곡의 형식구조는 <표4>와 같다.

형식	A	B-a	B-b	A'
마디	1~12	13~21	22~33	34~54
가사	1연	2연	3연	4연
조성	G-e-G	g-G	G-D-G	G-D-G
박자	Langsam (느리게)			

이 곡은 A-B-A'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성 관계는 G장조를 중심으로 딸림조와 나란한조인 D장조, e단조로 짧게 변화된다. 성악선율의 음역은 E₄-A₆인 11도이다.

A부분은 마디 1~12에 해당하며 두 마디 길이의 짧은 전주부를 갖는다. 마디 1~2의 반주부는 폭넓은 음역으로 상, 하성부가 모두 당김음으로 시작되고 성악 선율은 도약과 순차 진행이 유동적으로 진행되며, 3/4박자의 리듬도 골고루 나타난다. 조성은 전체적으로 G장조지만 마디별로 전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미봉의 혼란한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장조에서 단조로, 다시 장조로의 변화를 보인다. (<악보 15> 참고)

<악보 15>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마디 1~5)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또한 셈여림에 의한 대조로 가사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부분도 보이는데, 마디 12~16의 천국에 대한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그 곳에서 잠시 쉬고 나면 내 눈이 시원하게 열릴거예요)’ 부분은 *pp*로 시작하여 미몽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주부는 셋잇단음표 진행을 하며 성악선율과 병행하지 않고 독보적인 역할을 하며 왼손의 멜로디가 성악 성부와 2중주의 역할을 한다. (<악보 16> 참고)

<악보 16>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마디 11~19)

마디 20~30에 해당하는 B부분은 A부분과 유사하다. 마디 11~12에 나타나는 반주부의 리듬이 마디 24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부분의 전체적인 흐름이 A부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17> 참고)

<악보 17>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마디 20~27)

Gür - - tel und den Kranz zu-rück. Und je-ne himm-li-schen Ge - stal - ten, sie
 fra - gen nicht nach Mann und Weib, — und kei - ne Klei-der, kei - ne Falten um-

마디 37에서는 계속 이어져 오던 3연음부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slur staccato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미농이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고백하는 부분인 ‘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비록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와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g(깊은 아픔도 충분히 느꼈답니다)’가 이어지는 부분으로 미농의 아픈 과거를 잘 표현해 주어야 한다. (<악보 18> 참고)

<악보 18>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마디 32~43)

p
Zwar lebt' ich oh - ne Sorg und

Mü - he, doch fühlt' ich tie - fen Schmerz genug; vor

Kummer al - tert' ich zu frü - he, macht mich auf e - wig wie - der

cresc. *f*

후주는 Schneller로 성악가는 마지막 부분인 ‘auf ewig wieder jung(나를 영원히 젊게 해주세요)’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rit.*를 하게 되는데 마디 47부터는 이와 대조적으로 점점 빨라지며 아름다운 선율로 전체적인 곡의 내용과 분위기를 정리해 준다. (<악보 19> 참고)

<악보 19>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마디 44~54)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for measures 44-54. The vocal line begins with the lyrics "jung, auf ewig wieder jung." and continues with a melodic phrase.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dynamic marking *f* and a tempo marking *Schneller.*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a complex rhythmic pattern.

IV. 결 론

괴테의 문학적 작업은 음악사 사상 고전과 낭만의 시대를 거쳐 후기 낭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보고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괴테의 작품이 가지는 독일 문학의 예술적 가치는 문학 영역에만 안주한다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그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4개의 미농의 노래’를 분석하였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총 10편의 시는 하프 타는 노인의 시 4편, 미농의 시 4편, 그리고 필리네와 남작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미농의 4개의 노래는 “Kennst du das Land”, “Nur wer die Sehnsucht kennt”,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이며, 이 4개의 노래 안에서 미농의 정열적이고 남성적인 모습과 종잡을 수 없는 신비스러움을 가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면이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4개의 미농의 노래를 가사로 한 슈만의 가곡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곡 “Kennst du das Land”는 유펙 형식의 노래로 미농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자신이 납치되어 온 길을 떠올리는 과정이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에 나오는 자연과 동굴, 용들은 추상적인 이미지로 자기 그리움의 실현에 도달하기 힘든 미농의 심리를 표현해준다. 또한 각 연의 마지막은 ‘내 사랑’, ‘내 보호자’, ‘내 아버지’라는 가사로 빌헬름에 대한 미농의 동경을 엿 볼 수 있으며 가사의 내용에 따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요한 시어에는 반주가 그 시어를 꾸며줌으로써 성악 선율과 반

주부가 동형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주 또한 성악의 주제 선율을 다시 재현해 주며 곡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두 번째 곡 "Nur wer die Sehnsucht kennt"는 미농이 이름 모를 여인을 그리워하는 빌헬름의 모습을 보며 하프 타는 노인과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빌헬름에 대한 미농의 동경과 그리움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반주부에서도 성악 선율을 길게 혹은 짧게 계속적으로 나타내며 하나의 선율을 이루는 것처럼 성악 선율과 반주부가 2중주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곡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미농의 고뇌와 비밀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나타나있는 곡으로, 성악 선율의 잦은 전조로 여리고도 의지적인 미농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도약 음정과 불협화음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화성을 진행시켰으며, 그것들은 성악 선율과 반주 안에서 짜임새 있게 움직인다. 자신의 처지를 말할 수 없는 미농의 심경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피아노 반주의 극적인 효과로 미농의 다짐을 더욱 극대화시켜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 곡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부르는 미농의 노래이다. 전체적인 G장조 안에 마디별로 짧은 전조를 사용하여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주부는 성악 선율과는 다르게 셋잇단음표로 진행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슈만 가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반주의 독보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곡은 죽음에 대한 슬픔과 또 자신이 그리워하는 밝은 세계로의 동경 등 미농의 혼란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 위의 4곡을 분석한 결과 '4개의 미농의 노래'에서는 괴테의 소설에 나타난 미농의 성격이 슈만의 개성적인 음악 스타일로 잘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와 음악은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선율의 통일성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도 반주의 역할이 성악 선율과 동등한 위치로 자리 잡음으로써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었으며, 더욱 중요시 된 전주, 간주, 후주의 역할은 곡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슈만의 가곡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슈만의 음악적인 특징들과 무엇보다도 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곡을 다루기에 앞서 작곡가의 시대와 사상, 음악에 나타난 시를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성악가들이 곡을 접근 하는 데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곡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서적

- 김미애. 낭만주의의 불꽃 슈만의 가곡세계: 독일 예술가곡의 계보 5. 서울: 세광 음악 출판사, 1989.
- 민은기. 서양 음악의 이해. 서울, 2001.
- 박세원. A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울: 세광 음악출판사, 1998.
- 서석연. 질풍노도 시대의 괴테의 서정시 연구. 서울: 삼광출판사, 1987.
- 오한진. 독일 사회 소설론. 서울: 전예원, 1977.
- 장영태. 괴테의 명시. 서울: 세계 출판사, 1988.
- 조두환. 독일시의 이해. 서울: 한국 문화사, 2000.
- 피중호. 아름다운 독일시와 가곡. 서울: 자작나무, 1999.
- 하애자. 슈만의 피아노 문헌-독주곡편. 서울: 음악춘추사, 1991.
- 채은희역. Carol Kimball저,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안삼환역. J. W. 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서울: 민음사, 1996.
김정희외역, Schreiber. H 세계를 빛낸 사람들-문학과 예술가편.
서울: 온누리, 1994.

2. 학위 논문

강여정. "괴테의 시 <미농의 노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대.
김중흥.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를 중심으로 한 고전과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음악어법 비교분석".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1999.
박유민. "괴테의 시 <Nur wer die Sehnsucht kennt>를 중심으로 한 가곡의 시와 음악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2008.
오주현. "Goethe의 'Wilhelm Meisters'와 Schumann의 <4Mignon's Songs from Goethe's 'Wilhelm Meisters'>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2002.
이 샘. "슈만의 음악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5.
정예경. "슈만의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 Op.42>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2.
조설영. "괴테의 시에 의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미농의 노래> 중 'Kennst du das land'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2007.

3. 학술지

정복주.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 중 미농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음악연구 19집, 1999.

마에다 아끼오. 로베르트 슈만 (음악의 유산). 서울: 중앙일보사, 1988.

4. 사전

음악용어대사전. 서울: 태림출판사, 2004

음악용어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Sadie, Stanle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8.*
London: Macmillan Publish Ltd, 1980.

ABSTRACT

R. Schunmann 4Mignon's Song of Goethe's Wilhelm Meister

Youn, Young-ju

The Department of music

Vocal Music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turm und Drang is ahead of German Romanticism centering around 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 The Sturm und Drang was based on the nature, respecting emotion and individuality of human beings, which affected Renaissance art of 19th century. Johann Wolfgang von Goethe's masterpiece of this time period, 'Wilhelm Meisters Lehrjahre', is a sort of bildungsroman that is mainly about his life, so to speak, not only door to play renouncing

his social stability but also various experiences he had during his life.

Lyric poetries those were recited by Mignon in this novel continuously turned to music. A lot of composers such as Franz Schubert(1797~1828), Robert Alexander Schumann(1810~1856), Hugo Wolf(1860~1903), and Pyotr Ilyich Tchaikovsky(1840~1893) drew inspiration from this poem. In this thesis, <4 Mignon's Song>of Schumann will be hereby analysed, which was lyricized most in terms of poems in the Renaissance, 19th century. Besides, balance of poem and music in the German Lied will be followed as well as how shows themselves, piano and cantilena as one of the best feature of Schumann's lied.

In this novel, "Kennst du das Land", "Nur wer die Sehnsucht kennt",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are the poems that express Mignon's history and his original nature with mysterious himself.

Mignon sang the first music, "Kennst du das Land" longing for his home fostering hope but the other hand, could be a gloomy and dramatic song as well since he was looking back on the past when kidnapped. The second music "Nur wer die sehnsucht kenn" together with one old person who plays the harp watching Wilhelm who got inured and got help from unnamed lady, consequently, ache for the lady. This song shows Mignon's admiration as well as yearning towards Wilhelm. The third song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shows Mignon's deep affliction that cannot be revealed to his loved one and iron will for secret to be kept. The fourth song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of Mignon, which is basically mournful due to premonition of his death but could be wishful song for his next life.

As a result of above four analysed songs, Mignon's generally shows his longing for home and love and admiration for Wilhelm . Moreover, Schumann musically maximized Mignon's poems. He represent Mignon's mentality very well varying transition and concord especially in the main terms and verses.

Accompaniment is elevated to the equal status with cantilena being independent and harmonized with cantilena, which represent the best feature of Schumann's lied.